

2024년 8월 시청자위원회 운영실적

방송국명 : 주식회사 연합뉴스티브이

1. 회의개최

연 번	일 시	장 소	참석인원				회의형태		
			시청자 위원 (참석인원 /총인원)	방송국		총 인원 (명)	대면	온라인	서면
				경영진 (명)	경영진 외(명)				
1	8.29. 14시30분	연합뉴스TV 12층 대회의실	8/10	3	1	12	○		

○ 회의 참석자 명단

① 시청자위원 명단 : 손영준, 안호림, 허인순, 서신석,
진한수, 박화선, 안성희, 이성우

② 방송국 관계자 명단

- 경영진(대표(사장), 제작 및 편성부서 국실장급 또는 이에 준하는 직급) :
보도국장, 시청자센터장, 심의실장
- 경영진 외 : 시청자센터부장

2. 심의결과 및 조치현황

가.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방송 편성	방송프로그램					자체 심의규정	합계
	보도	교양	연예·오락 (스포츠)	기타	소계		
-	18	-	-	-	18	-	18

나. 사업자 반영

구 분	수 용	의견 참고	반 론	합계
건 수	18	-	-	18

다. 의견제시(시정요구)에 대한 조치내용

구 분	의견제시(시정요구)내용	조치내용	제시월
<p>보도</p>	<p>연합뉴스TV가 사회적 추세인 저출생 용어와 기존 사용했던 저출산 용어의 뜻을 잘 구분하여 사용했으면 한다. 또한 앵커나 기자들이 뉴스 보도를 할 때 본 용어의 뜻을 명확히 인지하고 보도할 수 있도록 교육이 이루어졌으면 한다. (서신석 위원)</p>	<p>사회부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도 전달해서 저출산, 저출생의 뜻을 명확히 인지해서 사용하도록 전달하고 교육했습니다. <24.8월 조치></p>	<p>'24.7월</p>
<p>보도</p>	<p>면허시험장 줄이는 고령 운전자들...시청역 사고 '급발진' 가능성 물으니 - 7월 09일, 며칠 전 시청역 앞에 끔찍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 사회도 고령 운전자에 대한 본격적인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발맞춰 상대적으로 여론 형성에 소외되었던 고령 운전자들의 인터뷰를 통해서 그들의 목소리를 듣는 인터뷰는 시의적절했다고 생각합니다. 예상과 달리 고령 운전자들은 주변의 우려의 시선 등으로 운전은 소심하고 안전하게 한다고 주장을 하며, 사고의 원인은 나이 탓이 아닌 운전자 개인의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고령 운전자의 운전 제한은 고령화 시대에 필요한 제도라는 측면과 교통약자인 고령층의 이동권과 행복추구권을 제한하며 여전히 존재하는 생계형 고령 운전자들의 상황도 고려해야하는 부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이는 우리 사회의 공론화를 통해 해결해야 할 과제이니 만큼 후속취재 및 보도를 통해 이성적, 합리적으로 대중의 중지를 모아갈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후속 취재 기대합니다.(박화선 위원)</p>	<p>'뉴스잇' 코너에 뉴스A/S 코너를 통해 직접 면허시험장에서 고령운전자를 만나고 취재후를 기자가 출연해서 직접 상세히 설명했습니다.고령운전자의 인식과 운전 에 대한 시각 등 연도별 면허소지자 1만 명당 교통사고 건수 등 여러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하였으며 무조건 나이탓이라는 것이 일반화하기는 무리라는 것을 강조 설명하였습니다. 수치만 가지고 판단하기는 무리이며 여러가지 제약을 할 시에는 전반적인 연구가 바탕이 되어야 하며 종합적인 것을 고려해서 결정을 해야한다고 환기시켰습니다. <24.8월 조치></p>	<p>'24.7월</p>
<p>총 건수</p>		<p>2건</p>	

라. 시청자 권익보호와 침해구제

요청 내용	조치 내용	조치일자	비고
-해당없음-			

마. 시청자평가원 선임 현황

(임기 : '24. 01. 01.~ '24. 12. 31.)'

성명	생년월일	전·현직	변동사유	비고 (임기)
김흥태	1969.11.7	(현)법률사무소 심평변호사	-	18.7.1.~24.6.30
임윤주	1985.08.28	(현)이화여자대학교 커뮤니케이션연구소 연구위원	-	21.11.01~25.10.31
안지연	1989.06.27	(현)한국헬스커뮤니케이션학회 총무이사	-	23.02.01~25.01.31
박세진	1981.08.06	(현)한양대학교 언론정보대학 정보사회미디어학과 조교수		23.06.01~25.05.31

3. 시청자위원회 운영 효율성

평가기준	해당여부
시청자불만, 시청자평가원 의견, 방심위 조치 등 활용 여부 ※ 활용 시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내용에 대한 답변' 실적표에 확인할 수 있도록 명시 필수	○
토의안건 사전공지 및 상시적 의견 개진 창구 운영 (사전 검토를 위한 위원 게시판, 단체 채팅방 운영 등)	○

4. 기타사항

가. 시청자위원회 회의록 공개 사항

- 연합뉴스TV 홈페이지에 공개

나. 시청자위원 명단

(임기 : '24. 1. 1.~ '24. 12. 31.)

구분	성명	전·현직	추천단체	추천부문	비고
위원장	손영준	현)국민대학교 미디어광고학부 교수 전)국회 언론제도 개선위원회 위원장	한국방송학회	언론 학술	
부위원장	안호림	현)인천대학교 교양학부 교수 전)한국정치커뮤니케이션 학회 편집위원	성정문화재단	문화	
위원	허인순	현)한국여성경제인협회 특별부회장 전)한진엔지니어링 설립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여성	
위원	서신석	현)전국학교운영위원연합회 사무총장 전)한국유비쿼터스협회 부회장	전국학교운영위원 연합회	학부모 단체	
위원	강건기	현)한국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 사무총장 전)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지원단장	한국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	과학기술 단체	
위원	진한수	현)법률사무소 익선 대표변호사 전)서초경찰서 상담변호사	서울지방변호사회	변호사 단체	
위원	안성희	현)선진노무법인 부대표 전)서울특별시 마을노무사	한국공인노무사회	노동 단체	
위원	이상헌	현)대한상공회의소 규제샌드박스실장 전)대한상공회의소 규제혁신 팀장	대한상공회의소	경제	
위원	이성우	현)중소벤처기업인증원 인증지원실 과장 전)한국사회복지협의회 대외협력실 과장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장애인 등 소외단체	
위원	박화선	현)중소기업중앙회 기업성장실장 전)중소기업중앙회 제조혁신실 부부장	중소기업중앙회	경제	
변 동 사 항					

당월 시청자위원회의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에 대한 답변

구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고		
			수용	참고	반론
보도	연합뉴스TV는 8월 폭염 날씨 상황을 상세하게 보도하는데 많은 노력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재난에 준하는 이번 폭염 보도를 통해 방송의 공공성을 한층 제고했다고 생각합니다. 기	최장기 열대야 기록을 계속 경신하고 있어서 저희도 폭염 특보를 전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이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폭염특보, 열대야특보라는 타 이들을 써서 필요할 때 효과적으로	○		

구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고		
			수용	참고	반론
	상전문 기자가 출연해 기후 변화 상황과 예보를 설명하는 모습도 보기 좋았습니다. 앞으로도 재난 상황에서 좋은 보도를 이어가기를 희망합니다. (손영준 위원장)	시청자들에게 날씨 상황을 전달 했습니다. 앞으로도 충실하게 보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도	최근 전기차 화재로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기차 배터리 사고 문제를 다양하게 다뤘습니다. 시의적절한 보도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최근 6년간 전기차 화재를 분석했더니 국내산 배터리에서도 불이 많이 났다는 내용은 보도의 사실성 제고라는 측면에서 돋보였다고 생각합니다. (손영준 위원장)	전기차 화재 배터리 문제는 보시는 분에 따라서 시각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애초에 청라 아파트 전기차 화재 문제 때문에 어느 의원실에서 자료를 준 것을 보도했는데요. 자칫하면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중국산이 더 위험하냐? 국산이 더 위험하냐? 이런 것 같이 돼버려서 좀 위험성이 있는 보도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아이템을 다룰 때는 정무적 판단까지 해서 무게감을 조절해 보도를 했어야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		
보도	19일 [신속뉴스] "기관총 장착한 사이버 트럭 우크라전 투입" 기사에서는 테슬라가 제조한 트럭 '사이버 비스트' 차량을 소개했습니다. 화면에는 '사이버 비스트'가 올 12월 인도 예정으로 가격은 \$113,990로 적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리포팅에서는 "미국에서 11만 달러 우리 돈 1억 원 대"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날 환율로 계산하면 한화 1억 5,241만 원입니다. 5천만 원 이상의 차이가 났습니다. (손영준 위원장)	11만 달러 이렇게 하면은 1억 원대는 맞기는 많죠. 문제는 1억 9천만 원도 1억 원대라는 거죠. 1억 5천만 원 정도 되면 사실 1억 5천만 원대라고 써주는 게 시청자들한테는 더 친절한 보도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수치를 표기할 때 정확하게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		
보도	날씨 방송, 연일 폭염에 열대야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숨이 턱 막힐듯한 더위로 날씨 방송에 관심이 많아졌는데요. 연합뉴스TV는 기상 전문 기자가 이른 오전 스튜디오에 직접 출연하여 시청자의 눈높이에 맞춰서 날씨	이번 여름은 기록적인 폭염이 계속됐기 때문에 저희가 8월 들어서는 거의 모든 뉴스에서 특히 아침 시간을 비롯해 출퇴근 시간에 집중적으로 날씨 보도를 했습니다. 아침 시간대 가장 빠른 순서로 방송하기도 했고요.	○		

구 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 고		
			수용	참고	반론
	에 대해 설명하는 것이 좋았습니다. 올 여름에는 폭우, 폭서가 번갈아가는 등 특히, 출근길과 퇴근길 날씨에 더욱 관심이 많았습니다. 날씨처럼 국민들의 생활 밀착형 정보는 뉴스 제공 이후에도 출퇴근 시에 자막을 통하여 관련 내용을 지속적으로 볼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면 좋을 거 같습니다. 또한 폭우, 호우, 태풍 등 긴급 보도의 경우 제목 소개나 실제 보도에서도 제일 먼저 다루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앞으로도 시청자가 알고 싶어하는 뉴스를 '시청자 눈높이'에서 보도하여 국민들에게 더욱 사랑받는 연합뉴스TV가 되었으면 합니다. (안호림 부위원장)	스크롤 등을 통해서도 계속 내용이 노출되도록 했고 저희 화면 우측 상단에 폭염 지역도 알려주는 방송도 했습니다. 아무튼 날씨에 대해서는 요즘 기상이변도 있고 해서 관심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날씨 방송 현황을 살펴서 시청자에게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보도 *시청자 불만활용	자막 스크롤, 8월 3일 9:06 올림픽 경기 자막에서 "탁구 단식 신유빈 중국 선수에 무릎 . . ." 8월 9일 11:16 "어제 올림픽 여자 탁구 단체 경기에서 중국에 패한 것 관련해서 자막에 중국에 무릎 . . ." '무릎'보다는 '패배' 또는 '석패'라는 말이 더 맞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했습니다.(안호림 부위원장)	무릎 꿇어 이런 식의 표현은 사실 그동안은 신문이나 통신 기사에서 조금 은유적으로 많이 썼던 표현이긴 합니다. 그래서 약간 진부한 표현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일반 기사가 아니라 제목만 나가는 스크롤에 쓰다 보면 조금 더 어색한 면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하신 대로 석패, 패배,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게 더 깔끔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보도	긴박했던 화재 순간...근무하던 누군가 밸브 조작해 스프링 클러 미작동, 연합뉴스TV 홈페이지 내에 인터넷 기사 자막 캡션을 켜고 시청 시 보여진 한글 자막이 맞춤법 띄어쓰기 오류가 많아 영상 보기가 불편했습니다. 스프링 클러 --> 스프레이 컬러, 최진경 기자 --> 최진혁 기자, 덮었고 --> 덮 었고 등등(허인순 위원)	저도 사무실에서 다른 업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오디오를 틀어 놓지 않고 자막캡션으로 TV를 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정말 부정확한 자막이 많습니다. 아직 기술적으로 말하는 내용을 정확히 자막으로 구현을 못하고 있습니다. 자막캡션 문제는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서 조금 정확도가 계속 높아지긴 하겠지만 아직까지는 우리 기술 수준에 좀 문제가 있다는 점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고		
			수용	참고	반론
보도	[이 시각 핫뉴스] '나는 절로'...낙산사에서 소개팅한 견우와 직녀 외, 기사 내용들은 좋았습니다. 배경 화면에 많은 기사들 중 관련 기사를 클릭해 빨간펜으로 밑줄 그어가며 설명해 주는 방식도 신선하고 좋았습니다만 배경 화면의 기사 수를 좀 줄이고, 관련 기사를 좀 더 클로즈 업 해 주면 집중도가 높아질듯 합니다. 현재는 산만함이 느껴집니다.(허인순 위원)	'이 시각 핫뉴스'는 여러 가지 뉴스 중에서 관심도가 높은 해당 뉴스를 클릭해서 보여준다는 취지의 화면 구성인데 이게 다른 뉴스들과 같이 보여서 집중도가 떨어진다고 하면 뉴스 총괄부와 논의해서 집중도를 높일 수 있는 표현 방식으로 바꿀수 있는지 고민해보겠습니다,	○		
보도	연합뉴스TV의 뉴스 스피드의 "젊은피, 디", 새롭게 개편하여 6월 18일부터 방송되기 시작한 "젊은피,디"는 MZ세대를 겨냥한 방송으로 느껴진다. "젊은피,디" 채널이 현재 방송된 4개의 콘텐츠에서 보여주었던 MZ세대들과 공감할 수 있는 신선함을 계속 유지해 가는 채널로서 거듭났으면 한다. 또한 "젊은피,디" 채널을 통하여 MZ세대가 연합뉴스TV의 고정 시청자로 많이 유입되어 시청률을 올리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서신석 위원)	'젊은피, 디'는 MZ 세대를 겨냥해 기획한 유튜브 콘텐츠입니다. 기성 세대의 시각이 아닌 MZ 시각에서 세상을 대하는 것을 다루려고 노력 중입니다. 초반이라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긴 호흡으로 꾸준히 콘텐츠를 생산할 계획입니다.	○		
보도	8월17일 [단독] 중국산이라 불난다고?...전기차 배터리 화재 국내산 89%, 뉴스 내용을 보면 보도 내용을 보면 중국산 배터리는 크게 문제없고 국산 배터리가 더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처럼 시청자들에게 인식될 수 있는 보도 방송을 하였다. 본 보도 내용이 단독보도로 "배터리 화재 89% 국내산"이라는 타이틀로 사용하여 보도할 가치가 있는지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다. 비교 시점도 맞지 않고 점유율에 따른 퍼센트도 맞지 않은데 단순히 건수만 사용하여 퍼센트를 산출한 자료를 국내산에 문제가 있다는 보도는 국내 배터리 산업의 전반에 영향	전기차 배터리 문제는 저희가 의원실로부터 자료를 받았지만 정무적인 판단을 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단독으로 자료를 받았다고 해도 보도할 때 비중 조절을 했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구 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 고		
			수용	참고	반론
	을 미칠 수 있는 사항으로 공영방송 연합뉴스TV가 신중하지 못한 보도를 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는 공영방송 연합뉴스TV가 보도 내용을 좀 더 신중하게 분석/검토하여 뉴스 보도가 이루어졌으면 한다.(서신석 위원)				
보도	출근길 인터뷰는 매우 유익한 일상 뉴스로 여러모로 도움이 많이 됩니다. 매일 흥미롭거나 생활 속에서 궁금해하는 주제를 캐스터가 관계자나 담당자를 만나 질문/설명하는 인터뷰하는 식으로 진행하는 데 궁금한 사항에 대해 이해하기 쉽고 유익한 맞춤형 코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출근길 인터뷰를 과학기술 분야 주제로 과학기술 관련 기관이나 각종 행사장을 방문하여 인터뷰를 많이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특히, 과학계의 대표 단체인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가 위치한 한국과학기술회관을 방문하여 회관 내 입주한 학회나 과학기술 행사와 관련 소개나 설명하는 인터뷰를 진행하면 좋겠습니다.(강건기 위원)	출근길 인터뷰라는게 흥미 있는 아이템을 많이 합니다. 의미가 있는 그런 아이템도 하긴 하지만...그래서 과학 같은 경우는 딱딱한 게 많고 흥미를 끌기 좀 어려운 요소들이 있어서 조금 쉽지는 않은데 그래도 흥미를 끌 수 있는 화제, 과학 아이템이나 인물이 있으면 위원님께서도 아무래도 전문성이 있으시니 저희한테 말씀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반영을 해보겠습니다.	○		
보도	8월 10일 뉴스 13에서 보도한 "코로나 환자 한 달 새 9배 급증...백일해·수족구병도 확산" 관련 보도는 물론 8월 9일 6배 급증 등에 이은 연속 보도로 코로나 확산에 따른 경각심을 울리는 보도이었습니다. 특히, 백일해, 수족구병, 마이코플라스마 폐렴 등도 확산되는 추세에서 호흡기 감염병 유행 현황과 대응법에 대해 보도한 것은 다양한 감염병 확산에 따른 국민들에게 주의를 알리는 시기적절한 보도이었습니다.(강건기 위원)	폭염에 따른 온열 질환뿐만 아니라 국민의 보건·건강과 관련이 있는 코로나 등 각종 질환에 대해 신속하고 알리고, 예방을 위한 방법도 전하기 위해 단신, 리포트, 현장연결 등을 통해 최선의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각종 계절성, 감염병 질환에 대해 시청자들이 경각심을 갖고 예방할 수 있도록 충실히 보도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		

구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고		
			수용	참고	반론
보도	<p>치솟는 전셋값에 '임대차 2법 폐지' 논란 가열, 해당 보도는 "최근 상승세를 보이는 서울 아파트 전셋값을 잡는 방안의 하나로 임대차 2법 폐지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는 앵커의 멘트와 함께 시작합니다. 이어 기자는 6개월 전보다 1억 6천만 원 상승한 서울 송파구 대규모 아파트 단지의 전세 매물을 소개하면서, "강남과 용산의 대단지 아파트를 중심으로 전셋값 신고가가 나타나고,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63주 연속 올랐다"며 최근 아파트 전세시장의 오름세를 설명합니다. 이어 "임대차 2법에 따라 최대 4년 동안 올려있던 전세 계약이 만료되면 전셋값 상승세가 더 가팔라질 것이란 관측이 나오며 폐지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고 덧붙이는데, 보도 내내 임대차 2법이 어떤 내용인지에 대한 설명이 없어서 아쉽습니다. 간단하게 자막으로나마 설명을 덧붙였다면 시청자들이 기사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진한수 위원)</p>	<p>경제 기사가 방송용 처리가 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거시경제나 금융 이런 부분들은 시청자가 한번 들어서 이해 못할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래픽이라든가 여러 가지 보조 장치를 뒤서 시청자들의 이해를 돕고 있는데요. 해당 보도를 저도 찾아서 봤는데요. 그래픽 같은 것도 없고 말씀하신 대로 좀 설명이 쉽지 않았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앞으로는 보다 쉽고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해당부서에 얘기를 하겠습니다.</p>	○		
보도	<p>[폭염도 넘어선 프로야구...사상 첫 천만 관중 눈앞]-24년 8월 19일, 프로야구가 폭염과 올림픽에도 불구하고 사상 첫 천만 관중을 눈앞에 두고 있다. 천만 관중은 그동안 접근성이 좋은 영화만이 누리왔던 꿈의 숫자인데 프로야구도 프로스포츠 사상 처음으로 대기록을 목전에 두고 있다. 불과 몇 년전까지만 해도 국제대회에서의 성적저조, 코로나 등 여파로 프로야구의 흥행을 우려했었는데 갑자기 올해 들어서 반전된 계기가 무언인지</p>	<p>저희가 7월에 야구 관중이 늘어나는 이유를 리포트 세 꼭지로 분석을 한 적이 있습니다. 최다 관중 돌파한 만큼 적절한 시기에 다시 한번 야구 흥행에 대해서 다뤄 보도록 하겠습니다.</p>	○		

구 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 고		
			수용	참고	반론
	에 대한 설명이 좀 미약했던 거 같다. 방송에서는 류현진의 복귀, 팬층이 두꺼운 팀들간의 상위권 경쟁등을 이유로 들었는데 그동안 각 구단별로 꾸준히 구장 인프라 개선, 아저씨들의 전유물이었던 프로야구가 20, 30대 젊은 여성층의 대거 유입 및 내부 규칙으로 ABS도입, 피치 클락 등 경기 시간 단축을 위한 KBO의 자구노력도 이러한 흥행가도에 일조한 것 같다. 변화에 민감한 젊은 MZ세대들의 왜 프로야구 팬이 됐는지의 인터뷰등이 추가가 됐더라면 해당 방송 기사를 이해하기에 더 좋았을 거 같다.(박화선 위원)				
보도	[뉴스메이커] 한국계 교토국제고, 일본 고시엔 4강진출 8월 20일, 최근 국가적으로 일본과의 관계 정립과 관련하여 국론이 분열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의 국기라고 불리는 일본 고야구 고시엔 대회에서 억압과 차별을 받고 동포사회의 교토국제고가 4강에 진입하며 전 일본에 한국어 교가가 생중계되는 모습을 연출하는 기쁜 좋은 뉴스였다. 하지만 뉴스가 진행되는 3분여간 교가가 울려 퍼지는 모습도, 학생들 및 동포 사회의 인터뷰 등 자료화면이 전혀 없이 아나운서가 일방적으로 전언하는 모습은 영상뉴스가 가지는 강점을 전혀 활용하지 못해 감동을 느끼기에 부족했다. 추가적으로 4강전, 결승전에도 갈 수 있는 만큼 교토국제고의 추가 행보와 변방의 동포사회에서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 동포들이 느끼는 자긍심은 어느 정도인지 후속보도를 기대해 본다.(박화선 위원)	저희가 도쿄특파원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영상확보를 제때 못했습니다. 다만, 아쉬운 부분은 교토 국제고의 일본 고시엔 우승은 예상 할 수 없는 그런 돌발 사태는 아니었습니다. 관계사인 연합뉴스 도쿄특파원한테 부탁할 수도 있는 문제고요. 연합뉴스에서 어렵다 그러면 도쿄특파원이 있는 방송사에서 영상을 구매할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시청자 제보가 들어와서 영상 일부 확보가 돼서 그때는 사용을 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아무래도 제보 영상이라는 게 직접 방송사에서 찍은 것과는 다르죠. 앞으로는 이런 경우 시의적절하게 영상을 확보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	
보도	"정년 연장" vs "재고용"...고령층 고용문제 해법은 8.3, '55세 이상 고령층 70%는 미래에도 계속 일하길 원	고령층 고용 현장 영상은 저희가 가급적이면 좀 더 촬영을 해서 다양한 성별 고용 현장을 확보하도록 하겠습		○	

구 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 고		
			수용	참고	반론
	한다', '고령층이 계속 일하길 희망하는 나이는 73.3세'라는 통계청 조사 결과를 토대로 정년 연장과 관련한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논의, 노동계와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전문가의 의견을 다루고 있어 시의적절하고 의미 있는 보도라고 생각합니다. 배경화면에 카페, 편의점, 피자가게 등 서비스직종에서 일하는 여성 고령자의 모습만 연속해서 노출되고 있는데, 고령층 고용 현황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고 자칫 고령자의 일 자리나 고령층 고용에 대한 편협한 인식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있습니다.(안성희 위원)	니다.			
보도	[슬기로운 생활뉴스] 은퇴자 노린 가상자산..."불법 다단계 피해주의" 8.5.'뉴스잇'이라는 코너 안에 새롭게 만들어진 코너 같았고 '슬기로운'이라는 제목과 관련한 대한 기대가 있어 눈여겨보게 되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니 1) 내년 최저임금 1만 30원 고시, 2) 은퇴자 노린 가상자산 불법 다단계 피해 주의보, 3) 롯데리아 버거류 가격 평균 2.2% 인상, 4) 머스크 "뉴럴링크, 두 번째 환자 뇌에 칩 이식 성공"이라는 4가지 이슈를 다루고 있었는데, '슬기로운'이라는 제목에서 기대되었던 것과는 달리 다른 코너와 차별화되거나 특별한 이슈를 다루고 있지 않아 아쉬움이 있습니다.(안성희 위원)	'슬기로운 생활뉴스'는 실생활에 유용한 정보를 다룬다 이런 뜻에서 하는 건데요. 말씀하신 내용처럼 '슬기로운 생활뉴스'라는 제목의 걸맞는 단신만 들어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네요. 머스크 뉴럴링크 하면 '슬기로운 생활뉴스' 관련이 별로 없는 것처럼 보이고요. 슬기로운이라는 이런 표현 자체가 요즘 디지털 콘텐츠에서 많이 좀 쓰는 그런 표현이어서 붙인 것 같은데 시청자들이 보시기에 코너명에서 벗어나지 않는 단신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만약에 그런 뉴스 확보가 잘 확보되지 않는다면 코너명을 조금 바꿔놓는 것도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	
보도	최근 뉴스피드에 '채이는삶의현장', '젊은피디' 등 생소한 콘텐츠들이 보여 살펴봤는데요. 특이한 사연이 있거나 SNS에서 화제가 된 인물이나	코너명을 정할 때 최근에 유행도 좀 감안하고 또 신선함도 줘야 되는 건 사실이지만 시청자가 단번에 이해를 못하면 사실 그 코너명은 문제가 있		○	

구 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 고		
			수용	참고	반론
	<p>장소 등을 찾아가 인터뷰하는 형식인데, 기존에 있던 '다다를 인터뷰', '현장잇슈'와도 유사한 내용이었습니다. 새로운 콘텐츠가 시청자와 접점을 늘리는 차원에서는 긍정적인 부분이지만 좀 더 세심하게 모니터링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채이는삶의현장', '짧은피,디'의 경우, 제목으로 어떤 내용을 다루는지를 유추하기가 좀 어려웠고요. 기존 콘텐츠와 차별화된 기획 의도가 있는지도 좀 의문이 들었습니다. 콘텐츠가 쌓이고 익숙해지면 굳이 설명이 필요하지는 않겠지만, 지금은 간단한 소개나 설명 등이 있으면 새로운 콘텐츠에 대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헌 위원)</p>	<p>는 거죠. 저희가 좀 보완을 하겠습니다.</p>			
<p>보도</p>	<p>연합뉴스TV가 SK브로드밴드와 함께 고향 사랑 기부제 관련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기획하고, 이를 '고향을 부탁해'라는 프로그램을 매주 일요일 저녁 8시 30분에 방영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고향 사랑 기부제는 개인의 자발적 기부를 통해 지방 재정을 확충함으로써 지역 간 재정 격차를 완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프로그램 제작진은 단순히 정부의 사업 알리기로 그치지 않고 바람직한 솔루션 제안을 통해 지역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포부도 밝혀서 흥미로웠습니다. 연합뉴스TV가 고향 사랑 기부제 홍보를 위한 기획 프로그램을 편성한 것은 '언론의 공영성'이란 측면에 부합하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의 관심이 필요한 분야와 영역을 놓치지 않고 국민들에게 이를 잘 전해줄 수 있는 보도전문채널로서 앞으로도 지금과 같</p>	<p>연합뉴스TV와 SK브로드밴드가 올해 초부터 같이 기획을 해서 8월부터 본 방송을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처럼 시청자분들 문의도 많이 해주시고 취재 현장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해 주시는 분도 있다고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SK브로드밴드가 SO, 지역 케이블 방송망 중 한 곳이지 않습니까? 저희가 SK브로드밴드하고 이렇게 협업 내지 교류를 하는 것은 중앙언론사와 지역 전문성이 있는 지역 언론과의 상생 차원에서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지역 전문성을 갖고 있는 SO들과 교류를 넓혀갈 생각입니다.</p>			○

구 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 고		
			수용	참고	반론
	이 사회의 등불과 같은 역할에 계속 성심을 다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이 성우 위원)				